

오월정신 릴레이아트 융합예술축제 열린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9일 '세계지성이 광주를 말하다'
현경 뉴욕유니언신학대학 교수 즉문즉답 토크쇼 등 다채
광주정신 계승·미안마와 연대 모색...대동 춤 등 유튜브 생중계

2021 오월정신 릴레이아트 일환으로 융합예술 축제가 개최된다. 특히 이번 축제 가운데 토크쇼와 대동 춤은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온라인 생중계되며, 같은 시간 문화전당 미디어월을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5·18의 세계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하 재단)이 오는 29일 오후 5시 18분 5·18민주광장에서 '세계지성이 광주를 말하다'를 연다. 이번 축제는 광주시와 제41주년 5·18민주항쟁기념행사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며 총 감독은 주홍 작가가 맡았다.

'즉문즉답 토크쇼', '인문학', '대동의 춤', '컬개그림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예술가와 오월어머니, 시민이 함께 광장에서 인문과 예술을 매개로 축제의 장을 펼친다. 이번 행사는 위기의 시대 집단지성에게 길을 묻고 시민들과 함께 해답을 모색해가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무엇보다 행사 장소와 시간이 옛 전남도청, 오후 5시 18분인 것은 광주 5·18 정신이 시간을 초월해 현재에 재현된다는 의미가 있다. 광주 정신의 본질인 대동세상에 대한 염원이 80년 항쟁의 시간을 넘어 오늘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경 교수

먼저, 행사는 '입을 위한 행진곡' 노래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오월항쟁 마지막 기념군과 싸우다 산화한 윤상원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린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최보결 안무가 외 4개 팀이 오월어머니와 함께 공동체의 혼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대동춤을 선보인다.

이후 뉴욕유니언신학대학 현경 교수가 '코로나 시대, 인류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시민들과 즉문즉답 토크쇼를 펼친다. 인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단지성의 지혜를 발휘하는 시간이다. 지금까지 평화와 환경 등을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해왔던 현경 교수는 광주의 정신 등 공동체 정신 등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지난해 5·18광장에서 열린 릴레이아트 행사 장면.

이외에 그림책 작가들도 참여한다. '나의 초록 스웨터'의 엄혜숙, '북극곰 엉덩이가 뜨거워'의 소중애, '오늘은 5월 18일'의 서진선, '노래를 품은 소안도'의 홍종희, '꿀따고개 꿀떡'의 김지연, '못말리는 카멜레온'의 윤미경, '타타의 커다란 날개'의 심명자, '돌담집 그 이야기'의 오지훈, '소리과물' 위정현도 힘을 보탠다.

총 감독을 맡은 주홍 작가는 "광주정신이 살아 있는 현장에서 인류공동체의 등불을 밝히는 이번 예술축제를 통해 위기에 선 인류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의 062-234-2727.

이외에 그림책 작가들도 참여한다. '나의 초록 스웨터'의 엄혜숙, '북극곰 엉덩이가 뜨거워'의 소중애, '오늘은 5월 18일'의 서진선, '노래를 품은 소안도'의 홍종희, '꿀따고개 꿀떡'의 김지연, '못말리는 카멜레온'의 윤미경, '타타의 커다란 날개'의 심명자, '돌담집 그 이야기'의 오지훈, '소리과물' 위정현도 힘을 보탠다. 총 감독을 맡은 주홍 작가는 "광주정신이 살아 있는 현장에서 인류공동체의 등불을 밝히는 이번 예술축제를 통해 위기에 선 인류가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의 062-234-2727.

전남여고문인회 '전남여고문학' 7호 발간

전남여고문인회(회장 서용좌) 동인집 '전남여고문학' 7호)이 발간됐다.

전남여고교를 졸업한 문인들로 구성된 전남여고문인회는 개교기념일인 5월 25일을 맞아 동인집을 펴냈다고 밝혔다.

작품집에는 최정자, 최은정 원로 수필가의 작품을 포함해, PEN문학상의 서용좌 소설가, 송촌문학상의 김옥애 아동문학가, 국제PEN광주문학상의 오소후 시인, 최지원문학상의 전숙 시인, 광주문학상의 김정희 시인 등 다양한 문학상을 수상한 28인 회원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또한 고명 시인 등 10명의 작품, 권형영의 시조, 강정인 수필가 등 12명의 수필 등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이번 문집에는 모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여고개교기념일기념 문예백일장' 수상자들의 작품도 수록돼 있다. '약속'과 '인연'을 주제로 했던 이번 3회 문예백일장에서는 2학년 박시현의 '지키지 못할 약속' 대상을 포함해 5인의 작품이 실려 있다.

한편 서용좌 회장은 "미래를 향한 그 어떤 희망적 꿈도 불가능한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작은 몸부림으로 문학에 파묻히기를 감행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농화전국국악경연대회

7월 3~4일 광주북구문화센터

북춤인 농화 박관용 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고, 신진 국악인 발굴을 위한 경연대회가 펼쳐진다.

'제11회 농화전국국악경연대회'가 오는 7월 3~4일까지 이틀간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사)아시아문화예술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교육부, 문화재청, 전남도, 광주시 등이 후원한다.

경연은 전통연희, 전통춤, 전통기악, 판소리, 전통고법 등 5개 부문에 걸쳐 초·중·등부, 고등부, 신인부(장년 포함), 일반부, 명창·명인·명무·명고부로 나눠 진행된다.

학생부 종합대상에는 교육부장관상, 신인부 종합대상 농화상, 명인·명무·명창·명고부 종합대상에는 국외의장상이 수여된다. 시상식 전에는 전년도 수상자와 심사위원이 꾸미는 축하 공연도 펼쳐진다.

한편 농화 박관용 선생은 1921년 진도에서 태어나 13세가 되던 해 진도 소포결농악으로 처음 국악을 접했다. 스승 박태주로부터 설북을 전수받은 농화 선생은 소포결농악의 경험을 접목해 그만의 독창적인 북춤으로 발전시키고 전통연희회를 구철했다. 이후 전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 진도 북놀이 예능보유자로 이름을 올렸다. 문의 062-525-6521.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이 오는 29일 강령탈춤보존회를 초청해 공연을 펼친다.

국립남도국악원, 강령탈춤보존회 초청 29일 토요일 상설공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야외 특설무대를 마련해 공연을 선보여온 국립남도국악원이 마지막 야외 특설무대 공연으로 강령탈춤보존회를 초청해 무대를 꾸민다. 오는 29일 오후 5시.

(사)강령탈춤보존회는 197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된 강령탈춤을 보존하고 이어가는 단체다.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강령탈춤의 멋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향유하게 함으로써 전통연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전통문화예술의 맥을 잇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평소 접하기 힘든 강령탈춤 공연을 해설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제4과장 상자춤', '제6과장 노승·취발이춤', '제5과장 양반·말뚝이춤', '제7과장 미알영감·활미춤', '제1과장 사자춤' 순서로 특징적인 탈춤을 선보인다.

공연 시작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새로운 노선(솔비치진도 출발 오후 4시20분)도 운영한다. 130명 모집. 무료관람. 문의 061-540-404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불교적 상상력...틀에 얽매이지 않는 '언어의 만다라'

석연경 시인 '푸른 벽을...' 펴내

송수권문학상 젊은시인상을 수상한 석연경 시인이 세 번째 시집 '푸른 벽을 세우다'(시와세계)를 펴냈다.

시집은 이미지들의 다양성, 불교적 상상력 등 형식과 구조의 자유로움뿐 아니라 사유에 있어서도 활달함을 보여준다. '씨앗의 배후', '몽상의 어깨 위에서', '나무의 주저흔', '혼자의 길 위에서', '허공, 황금 작약에게' 등 다수의 작품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작법을 시도한다.

이하석 시인이 '화엄의 우주 속에서 싹 트는 씨앗의 미학'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창작집은 '언어의 만다라'다운 면모를 보인다.

"흰 꼬끼리가 숲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을 지나 온 빛줄기가 숲에 드니 상아가 긴 황금 작약이 나옵니다. 바람이 불니다. 황금 작약의 시간에 누가 성벽을 쌓나요(중략) 황금 작약이 흔들리며 가득 피다가 입을 오르리는 동안 허공은 허공인 채 있습니다"("허공, 황금 작약에게" 중에서)

'허공, 황금 작약에게'는 시인의 작품 세계를 가장 밀도있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흰 꼬끼리'와



'작약'은 불교적 사유의 단면을 보여주는 시어다.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잉태할 때 꾸었던 꿈이 흰 꼬끼리였으며 작약은 불교 의식에서 많이 등장하는 꽃이다. 또한 '허공'과 '절벽'은 깨달음의 경지와도 연관이 있다. 이처럼 시인의 시적 상상력은 막힘이 없으며, 사유의 전개 또한 역동적이다. 깊이 속에 내재된 자유로움이 시를 읽는 이에게 새로운 인식의 세계를 선사한다.

소인석 문학평론가(단국대 교수)는 "석연경의 상상력은 장쾌하다. 그것은 히말라야의 설봉을 오르는 바람처럼 거침없고, 까마득한 공중에서 순식간에 지상으로 낙하하는 독수리처럼 말설임이 없다"고 평한다.

한편 석연경 시인은 대학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연경인문문화예술연구소에서 인문학을 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 시집 '독수리의 날들', '섬광, 쇠방신'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 |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흥지사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